

[사회]

전남 당뇨·관절염 환자 전국 최고

10명 중 2명 꼴 타지역 '원정 진료' 광주 감염성 질환 비율 가장 높아

급속한 노령화로 전남도내 당뇨·관절염·간질환 등 만성질환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원정 진료' 비율은 여전히 높아 의료비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3일 '2006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통해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만성질환 진료인원 최다=7개 주요 만성질환자 진료인원 조사에서 전남도는 3개 질환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2개 질환은 두 번째로 높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만성질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보면 당뇨가 인구 1천명당 46.0명(전체 8만9천85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관절염 157.8명(30만8천111명) ▲간질환 35.3명

(6만8천852명) 진료인원도 전국 최고로 집계됐다.

고혈압 110.0명(21만4천672명)과 감염성질환 205.8명(40만1천772명)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감염성질환은 광주시가 206.9명(29만2천165명)으로 전남도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법정전염병과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시는 고혈압이 69.7명(9만8천448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는 등 다른 질환의 진료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거주지역 내 진료비율은 최저=(6만8천852명) 진료인원도 전국 최고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남도내 환자의 거주지역 외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645만2천554일로 전체 방문일수의 16.9%를 차지했다. 이는 경기도와 충남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전남도 환자 10명 중 2명 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원정진료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로 7.1%였고, 부산시는 8%, 대구시 8.1% 기록,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유출 비율이 낮았다.

◇요양기관 당 의료보장인 많아=전남도는 요양기관 1개소당 말아야 하는 인구 수가 675명으로 전국 평균 656명 보다 많았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이 1개소당 1천352명을 담당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종합병원 10만2천739명 ▲병원 2만3천239명 ▲약국 2천512명을 기록했다.

요양기관 대비 인구 수가 적으면 환자는 보다 여유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내원 환자 수가 적어 수익이 낮아진다.

광주시는 의료기관 대비 인구 수가 64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인구 대비 병원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병원의 병상 수는 집계되지 않아 의사 1인당 진료인원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한현주기자 ahj@kwangju.co.kr

■만성질환 진료 인원 상위 3개 지역

당뇨	1위	2위	3위
관절염	전남 (157.8명)	전북 (131.9명)	충남 (126.6명)
간질환	전남 (35.3명)	전북 (31.2명)	경북 (29.2명)
고혈압	광주 (69.7명)	전남 (110.0명)	충남 (107.7명)
감염성질환	광주 (206.9명)	전남 (205.8명)	울산 (199.9명)

※ ()은 1천명당 진료 인원

아침 안개 조심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1월 4일
(음 11월 26일)
◇전국날씨

광주	맑음	-2~8℃
주요도시	맑음	1~8℃
여수	맑음	2~8℃
대구	맑음	0~9℃
부산	맑음	-5~8℃
인천	맑음	-3~9℃
서울	맑음	-4~9℃
대전	맑음	-3~9℃
전주	맑음	-5~9℃
제주	맑음	-2~7℃
울릉도	맑음	-3~10℃
독도	맑음	-3~8℃
해운대	맑음	-7~7℃
속초	맑음	5~9℃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11:21 썰물 < 04:03
여수 밀물 < 06:52 썰물 < 13:01

▲해돋이 07:41 ▲해질 17:33 ▲달돋이 03:57 ▲달질 13:52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날씨						
최저/최고	-1/17	0/10	0/8	1/7	-1/6	-2/5

기초노령연금 광주·전남 수급자 21만9,664명 확정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지급하는 제1단계 기초노령연금 광주·전남지역 수급대상자가 21만9천664명으로 확정됐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체 70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광주의 경우 65.9%인 4만4천553명, 전남은 79.5%인 17만5천111명이 이달부터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이같은 비율은 전국 평균인 61%에 비해 높은 수치다.

시·도는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월 40만원 이하인 단독노인과 월 64만원 이하인 부부노인을 선정했다.

매월 지급액은 단독 노인의 경우 소득에 따라 2만원~8만4천원씩 5단계로 나뉘고 부부 거주 노인은 4만원~13만4천원씩 4단계로 분류된다.

시·도는 또 지난해 12월 이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노인에게도 적격 여부를 심사해 2월 중 소급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2단계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거나 감액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아생동물들이 겨울 먹이 많이 먹으렴”
“21세기 환경보호협의회”는 3일 오전 광주시 남구 노대동 건자산에서 아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다. 전남대 오준성 교수 등 환경전문가와 남구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동물을 위해 고구마 등 300kg 가량의 먹이를 뿌려줬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 정이사 후보 10명 공개

옛 재단측 이사 참여 요구 정상화 걸림돌

조선대학교가 법인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구 재단측 인사들의 이사 참여 요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대 법인과 '조선대학교 자치운영위원회'(대표의장 이상열·이하 대자협)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 이사 후보 10명의 명단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사 후보는 공모·추천을 통해 '새로운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8명의 복수 후보와 전호중 조선대 총장, 신홍수 조선대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등 10명이다. 복수 후보는 김두영(51·전 조선대 이사) 목포기독교회 원 차과원장, 김용익(54·전 광주시의원) 동신대 교수, 김종재(67·전 광주

경실련 대표) 전남대 명예교수, 김택민(58·전 조선대 학생처장) 고려대 교수, 김형태(51·번호사) 천주교인권위 이사장, 손화래(65) 전 한국대공공사 사장, 이강관(72·전 대한생명회) SY탱크터미널(주) 회장, 전홍준(61) 하나통합의원 원장 등이다.

조선대 법인이 추천한 이들 10명 중 6명(공모지 4명·당연직 2명)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선임을 받아 교육부 승인을 거처면 '조선대 정이사 체제'가 일단 형태를 갖추게 된다. 여기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내놓을 6명의 후보 중 3명을 이사로 선정하면 마무리된다.

결국 조선대 정이사체제 출범의 관건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박철용 조선대 전 총장의 일가가 자신들도 새로운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전국사학의 권리를 인정해 새 이사회를 구성할 때 3분의 2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눈썰매장 '안전 불감' 23건 적발

전남도는 3일 "겨울철 어린이 등이 많이 이용하는 도내 눈썰매장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불안전 요인 23건을 적발,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순 백아산 눈썰매장 등 6곳에 대해 지난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점검에서 전남도는 슬로프 노면의 평탄성 및 도착 지점 안전매트 설치 여부, 안전요원의 배치, 전기시설의 불량으로 인한 감전사고, 기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불안전 요인 등에 대해 분야별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눈썰매장 슬로프 노면 상태 등은 비교적 안전했으나 일부 눈썰매장의 경우 진·출입로에 안전난간 미설치 등 6곳에서 23건의 불안전 요인이 지적됐다.

전남도는 이 가운데 슬로프 주변 쓰레기 방치, 전기 시설 및 제설기 인입 콘서트 등 전기시설 관리 소홀 등 17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가장 전에 보완 및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유급지원병 하사 1호 탄생 퇴학 고교생 구제 쉬워져

병력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유급지원병제 전문하사 1호가 탄생했다.

육군은 3일 일선 부대 가운데 최초로 17보병사단 김수현(24·경기도 하남시) 병장을 전문하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2천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운영한 뒤 매년 2천~3천명씩 점진적으로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전투 기술분야 1만명, 참성할 때 3분의 2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연남뉴스

퇴학 조치를 받은 고교생이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교육부는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방법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한 초·중·고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 소속의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를 신설,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고교생이나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퇴학당한 고교생이나 학부모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남뉴스

11월 20일
오픈싱업중

상무지구 추억의 콘서트
밴드피아 7080

중요한사람 가수 공연
이성민, 박지우, 박지우

밴드피아 7080

상무지구 밴드피아 오픈싱업 중
Tel. (062) 381-5542, 382-5542

광주·전남
이용가능장소

대산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확장 이전
이용사 개인지도

세일 30%

초슬림!!

귀여운 분위기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62-873-5250, 672-8822
문의처 011-807-5330